

마츠이의 실내화 고안

사 랑이 발명의 뿌리가 된 경우도 많다.
특히 가정주부들의 발명 중에 이러한 것들이 많은데, 대부분 가족들을 위해 만든 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적인 발명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실내화도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발명가는 60대 초반의 할머니였던 마츠이 여사.

마츠이는 발명이 뭔지도 모르는 전형적인 할머니였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들내외가 외출하자 마츠이 여사는 두 살난 손자와 큰집을 지키고 있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손자는 온 집안을 돌아다녔다. 비틀거리며 아장아장 걷는 모습에 마츠이 여사는 마냥 즐겁기만 했다.

양말 신은 발이 미끄러운 듯 금방 넘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양말을 벗겼다.

그랬더니 발이 시린 듯 발가락을 움츠렸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마츠이 여사는 복도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양말을 생각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날 밤 마츠이 여사는 손자의 양말 바닥에 고무를 둥글게 잘라 붙여 보았다.

신기하리만큼 미끄러지지도 않았지만 여간 따뜻하게 아니었다.

마츠이 여사는 손자가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만들어주며 실내에서 신발대신 신도록 했다.



양말 윗 부분을 잘라내고 쉽게 신고 벗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여간 편리한게 아니었다.

‘어머니가 만드셨어요?’

아들은 어머니 마츠이 여사가 만든 슬리퍼를 신어보는 순간 특허를 생각했다.

다음 날 서둘러 특허출원을 마치고 만들어 시장에 내놓아 보았다.

성공이었다.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 나갔던 것이다.

요즘 지구촌의 실내화는 이렇게 해서 탄생되었다.

당시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마츠이 여사가 남긴 한마디 ‘오직 사랑’이라는 말은 발명계에 교훈이 되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팀장
왕연중 기

발·특2006.6.7 |